

학습지역과 사회적 혁신: 개념화와 척도화 그리고 인과관계 분석*

한상일**

이현옥***

본 논문은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저성장, 고령화, 고위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혁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사회적 혁신은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지식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대안의 모색이 중요하며, 학습지역의 형성은 사회적 혁신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지역과 사회적 혁신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밝힌다. 둘째, 개념의 측정용 척도를 개발하고 그 척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한국의 맥락에서 실증 분석한다. 실증분석은 2015년 12월 한국의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147개 지방자치단체별 통계로 재구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분석한 결과, 학습지역 특성의 대부분 영역이 사회적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대화와 토론의 활성화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혁신에 있어서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명확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공식적 제도형성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대화의 통로와 토론문화의 형성 또한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주제어: 학습지역, 사회적 혁신, 사회적 경제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연세대학교 미래선도연구사업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2015-22-0152).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글로벌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조직이론, 사회적기업, 학습조직 등이다(hans@yonsei.ac.kr).

***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발전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글로벌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적 경제, 국제개발, 젠더 등이다(hlee1@yonsei.ac.kr).

I. 서론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한 한국사회는 1997년과 2008년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사실상 저성장 사회로 접어들었고 산업화 시기부터 진행된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¹⁾ 경제 위기가 유발한 실업과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로 인해 소득불평등과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교육 및 사회문화적 기회의 불균등이 유발하는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과 불확실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령화, 저성장, 고위험 사회의 도래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보다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정무권, 2012; 박진희, 2015).

산업화 시기에는 경제발전이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사회문제의 해결에 국가 관료제의 역할이 중시되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불균등 발전의 부작용이 저성장과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더욱 심화된 이후, 지역에서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가 관료제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된 반면, 지역사회가 새롭게, 다양한 해결방안을 도입하여 사회보호, 일자리제공, 교육, 지역개발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혁신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혁신은 지역 단위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OECD 2009). 지역에서 사회적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거시적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자기 주도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지역을 기반으로 구성원들이 학습을 해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토대를 ‘학습지역(learning region)’이라고 한다(OECD 2002).²⁾ 이러한 학습지역에서는 혁신의 아이디어가 발현되고, 새로운 제도가 설계되

1) 실제로 1970년대에 2.21%이던 인구성장률이 2010년에 0.48%로 크게 감소한 반면, 고령화는 가속화되어 2000년에 7.2%를 차지하던 65세 이상 인구가 2010년 현재 11%까지 상승하여 인구 10명 중 1명이 고령인구가 되었다. 1970년대에 경제성장률의 중간값이 10.5% 이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경제위기 사이의 경제성장률의 중간값은 4.9%, 2008년과 2014년 사이의 경제성장률 중간값은 2.9%로 하락했으며, 시도별 연평균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도 지난 10년 동안 증복과 전복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하락했다.

2) 이 연구는 Marsick & Watkins(1999)의 개념화를 반영하여 학습(learning)을 “개인, 팀, 조직 그리고 지역이 전반적인 시각과 사고를 향상하여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지식을

며, 사회문제에 대해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³⁾

이처럼 학습지역과 사회혁신의 개념이 한국사회에 다가올 미래의 사회적 위협에 대비하는데 중요한 반면, 두 개념의 본격적인 개념화와 실증적 분석을 위한 척도화, 그리고 그들 간의 인과성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실증적인 연구가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향후 학습지역과 사회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비교분석이 필요하고 비교분석의 기준이 될 평가척도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습지역 특성과 사회혁신을 개념화하고 척도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저자들은 학습지역과 사회적 혁신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중시하는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개념구성을 시도할 것이다. 개념구성을 한 후에 개념의 측정을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 그 척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한국의 맥락에서 실증 분석한다. 그리고 2015년 11월에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념화와 척도화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나아가서 학습지역 특성과 사회적 혁신의 인과관계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하여 학습지역과 사회적 혁신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위협의 감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학습지역과 사회혁신의 개념화

1. 학습지역의 개념화

1) 학습지역의 중요성과 개념의 발전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며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학습활동은 지식기반 사회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⁴⁾ 경제위기가 반복되고 사

창조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시되는 학습지역 개념은 다양한 학습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공동체를 추구하는 평생학습도시의 개념과도 구별된다.

3) 최근 지역사회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주축이 되어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도 그 접점에 있다.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인 사회적 경제는 새로운 대안의 모색과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지속가능한 협력체계의 형성을 통한 사회적 혁신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러한 활동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학습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회적 위험이 커질수록 지역사회의 지식경쟁력이 중요해지고 지역단위 학습이 증시된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이전하는 제도와 연결망을 활성화하는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있다(Morgan, 1995; Rutten & Boekema, 2007). 최근에는 지식의 생산과 확산을 위한 공식적 제도뿐만 아니라 비형식적 제도로서의 가치관과 규범 등의 문화를 습득하고 공유하는 과정도 증시된다(Lorenzen, 2007). 가치관과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변화를 미리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해 탐구하고 토론하는 학습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장려할 수 있고, 학습과정에서의 의사소통도 원활해진다. 학습지역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는 학습의 생태계로 조성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리더는 전략적 리더십을 갖추고 일반 구성원들은 권한의 위임을 통해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학습의 초기개념은 19세기 후반 영국과 미국에서 지역사회 성인교육, 보육서비스, 도서관 서비스 등의 기능을 수행했던 인보관(settlement house)운동⁵⁾이나, Patrick Geddes 등이 시도한 참여적 도시계획 운동 등에서 찾을 수 있다.⁶⁾ 1950년대 이후에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개발도상국가의 지역사회개발 활동이 진행되면서 농촌의 자조 사업을 위한 사회조직의 구성과 성인 문해 및 기초교육, 보건교육, 농업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지역에서의 학습 개념이 확산되었다(정지용, 2000). 유사한 시기에 남미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한 참여연구 등의 지역사회운동이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Paulo Freire는 브라질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불평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학습을 증시하였다(Freire, 1970). 이는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회적 행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역량을 갖추는 임파워먼트를 강조하면서, 참여를 통해 구성원들이 보다 지역에 정통

-
- 4) 일반적으로 개인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훈련(training), 교육(education), 그리고 학습(learning) 등으로 이루어진다(고기순·김인호, 2004). 훈련이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기술습득을 위한 반복의 과정으로, 교육이 전반적 조직관리를 위한 지식의 이전으로 정의된다면, 학습은 개인, 팀, 조직 그리고 지역이 전반적인 시각과 사고를 향상하여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과정이다(Marsick & Watkins, 1999). 학습은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므로 초빙된 강사보다 동료의 역할이 중요하다. 상호 대화, 토론, 협력을 통해 미래의 변화를 예견하고 대응할 것을 강조하며 행동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을 넘어서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learning by interaction)을 통해 지식이 창조, 확산된다.
 - 5) 인보관 운동은 20세기 초 미국과 영국에서 이민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동화되는 것을 돕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지역사회 교육 및 복지 사업이다.
 - 6) Patrick Geddes는 스코틀랜드의 도시계획가로서 건축과 계획에 지역의 개념을 접목했으며,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수요와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그들의 웰빙에 기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하게 되며, 지역의 불평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새롭게 해석할 역량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관점이다.

이러한 초기 논의와 실천사례 등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학습을 활용한 것이라면, 학습지역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1970년대 이후 UNESCO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의 개념이 강조되면서부터이다(Faure et al., 1972; UNESCO, 1996). 평생학습사회는 학습과 교육이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의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즉 인간의 생애에 걸쳐서 주체적으로 학습을 지속하는 사회이다. 평생학습사회에서 지역은 삶의 터전이며 학습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다. 학습공동체로서의 지역은 '학습사회'로 정의되는데 학습사회는 전 생애에 걸친 학습기회가 수직적, 수평적으로 통합되어 학습을 위한 동기와 역량이 갖추어질 때 이루어진다.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조직 전체가 학습하는 '조직학습', 지역의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학습' 개념의 토대가 형성된다.

학습지역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 OECD에서 학습경제와 지역혁신체제로서의 학습지역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관심을 얻게 되었다(OECD, 2001b). 20세기 후반 글로벌경제위기는 많은 지역공동체의 공동화와 경쟁력 약화를 가져왔고 지역사회의 위기를 초래한다. 따라서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산업과 지식생산 및 지식 확산 시스템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특히 대량 생산체제가 개별화된 생산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지식의 생산과 확산이 중시되었으며, 지역의 지식경쟁력의 우위는 신뢰와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학습지역의 효과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손유미, 2005). 따라서 학습지역을 구축하기 위해서 학습경제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형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으로 충만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이희수 외, 2001). 따라서 학습지역 전략은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역혁신전략 및 학습공동체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일반적으로 지역혁신체제로서의 학습지역에 대한 관심은 지역인적자원개발(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의 개념으로 발전한다. 지역인적자원 개발은 지역의 생산체계가 지역노동시장의 핵심이 되는 지식들이나 노하우가 그 지역에서 발전되기 때문에 지역을 학습과 혁신을 위한 핵심적인 장소로 이해한다(김태준 외, 2006). 그리고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지식과 교육, 학습,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과 같은 요인들이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핵심요소로 기능한다고 설명한다.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

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신뢰,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체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2013년에는 국제연합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태스크 포스 팀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사회적 경제는 위에서 논의된 지역사회가 직면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지역 주민의 역량개발, 지역 자원의 활용, 기업이 정신을 통한 위기의 극복, 지역의 연대를 통한 불평등의 해소 등의 다양한 주제와 관련하여 발전하고 있다.

2) 학습지역의 개념화

그렇다면 학습조직은 어떤 이론적 구성요소로 개념화되는가? 학습지역이 본격적으로 연구된 것은 1990년대 이후였으며, 당시 학습지역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지식기반사회에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과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학습지역 논의에서 가장 먼저 강조된 것은 지역의 중요성과 지역전체로서의 학습과정이었다. Florida(1995: 527)는 학습지역을 “글로벌·지식집약적 자본주의 시대에 지식, 아이디어 그리고 학습의 흐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지식과 아이디어의 저장소로서의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서는 경제적 자원과 지식자원이 전세계적 차원으로 공유되고 확산되는 세계화 현상과 지식기반사회에 지식과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생산뿐만 아니라 지식의 이전과 확산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맥락화된 지식의 학습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환경으로 지리적인 인접성과 특정한 사회경제적 맥락을 공유한 지역임을 강조하였다. 즉 지역은 학습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하며 지역전체로서의 학습과정이 학습지역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학습지역 논의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지역의 다양한 기관을 통한 충분한 학습기회의 제공과 역량의 제고이다. Hassink(1998: 6)는 학습지역을 “지역 내, 지역 간 학습을 강조하는 강력하고 유연하게 연계된 행위자들을 포괄하는 지역발전 전략”으로 인식하면서, 학습지역을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서는 주요 행위자의 협력과 상호작용이 강조되며 지역 내 또는 지역을 넘어서는 교류와 협력을 통한 학습기회의 제공이 강조된다. 지역 내 다양한 기관들 간의 협력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기회의 제공이 중요하고, 특히 상호작용적 학습, 포스트 포드주의 경제가 갖는 사회과정의 맥락에서 학습이 지역발전에 직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

습기회가 축적되면, 제도적 착근성을 토대로 협력을 이루고 혁신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Morgan(1997)은 학습지역을 설명하면서 지역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한 혁신역량, 기술적 역량, 네트워크 역량 등의 제고를 강조하였다. 즉 학습지역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에서의 학습을 유발하고 혁신과 변화를 통한 역량의 제고를 목표로 삼는다.

학습지역 논의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임파워먼트를 통한 참여이다. Asheim(1998: 3)은 학습지역을 “학습조직과 상호작용 학습의 지리적, 제도적 착근성”으로 정의하면서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다양한 방식의 상호작용을 위해 대화와 토론 등을 바탕으로 한 소통 속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Hirsch(2001: 13-14)는 학습지역을 전략적 방향, 제도적 관계의 수립 그리고 문화적 유산의 확립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⁷⁾ 즉 학습지역의 형성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기회의 제공, 다양한 개인과 기관들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러한 방안들이 제도적, 문화적으로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무엇보다 강조된 것은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제도와 문화의 수립이다. 제도적 분권화를 통한 임파워먼트가 있어야 하며 개인들 사이에는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이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즉 대화와 토론을 통한 가치와 비전의 공유가 전략적 방향으로 이어져야 하며 지역혁신체제나 지역 클러스터 등에서 개인과 기관이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임파워먼트를 통해 다양성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습지역은 지역전체로서의 학습, 다양한 학습기회의 제공, 역량개발의 중시, 대화와 토론의 문화, 권한의 위임을 통한 임파워먼트 등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사회혁신의 개념화

1) 사회혁신 개념의 발전

학습지역의 개념과 유사하게 사회적 혁신의 개념도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7) Hirsch(2001)는 학습지역에서 공동의 비전, 가치와 목표 등을 통한 전략적 방향이 있어야 하며 학습을 통해 지역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관계의 수립, 문화적 관계의 형성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 논의는 1990년대 이후부터 강조되기 시작한 지역혁신 체제 또는 지역클러스터 등에서 발견되는 기관 간 협력체제나 인적관계의 다양성을 통해 지식의 생산과 이전 등과 연계되어 장기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단계로 인식되었다.

20세기 초반 Max Weber는 사회적 창조(social invention)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관계에 부합하는 조직화의 논리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경제학자 Joseph Schumpeter는 혁신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기존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보다 발전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하여 생산수단의 새로운 결합을 이루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창조적 파괴활동으로 표현하였다. 그 이후에도 사회적 혁신은 새로운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대표적으로 1960-7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전개된 학생 및 노동자 운동을 집권적 사회를 참여적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혁신적 사회운동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Chambon et al., 1982). 이러한 사회운동의 과정에서 창조적이고 상향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집단행동과 그를 통한 사회전체의 변혁을 혁신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회혁신이 본격적으로 학계에서 논의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이다. Drucker (1985)는 사회혁신의 개념을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기업가정신을 통한 사회시스템의 혁신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혁신의 개념을 위험을 무릅쓰고 기회를 포착하여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도전의 정신으로서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연계하면서 지식기반 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사회혁신의 다양한 효과를 강조하였다. 나아가서 혁신 활동의 개념을 확장하면서 민간 기업이나 공공조직에서 발견되는 관료제적 구조가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설명하였다. 혁신과 성장이 정체된 대규모 조직에서 분권화와 고객지향성을 통해서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이러한 주장은 1990년대 이후 공공부문 관리에 많은 영향을 준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이론의 형성에도 기여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도입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분권화와 지방화가 가속화되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는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확산되고 사회적 기업이 증가하면서 정부, 기업, 비영리 영역의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파트너십 형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⁸⁾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새롭게 주목 받기 시작한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혁신을 실현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기능하면서 사회혁신 개념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8) 2000년대에 왕가리 마타이, 무하마드 유누스 등 사회적 기업가들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고, 사회적 혁신 사례를 소개한 다양한 저서들, 아쇼카 재단과 슈왓 재단 등의 기관에서 사회혁신을 위한 인재양성지원 및 아이디어 확산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관심이 증가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유럽연합, OECD, 세계은행,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사회적 경제를 대안적 경제질서로 주목하면서 사회적 경제가 주도하는 다양한 협동, 참여, 네트워크 등의 새로운 행동양식,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 사회개혁, 기술혁신 등에 관한 담론이 확산되었다.

2000년대 이후 사회적 혁신은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고려되었다. 2009년 미국 정부는 백악관내에 사회혁신과 시민참여국(Office of Social Innovation and Civic Participation)을 설치하고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서 사회혁신을 지원하였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1년 Social Innovation Europe을 설립하고 27개 회원국가의 사회혁신 사례의 지도를 작성하고 있으며, BENISI 사업을 통하여 300여개에 달하는 사회혁신의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유망한 혁신모형을 양성하고 있다.

2) 사회혁신의 개념화

2000년대 후반 이후에 사회적 혁신에 관한 논의가 다양한 양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가 정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의 개념과 함께 발전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경제가 갖는 주요 특성으로 새로운 대안(newness), 다양성(diversity), 협력(collaboration), 파급효과(impact) 등이 제시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발전으로 잘 알려진 캐나다 퀘벡지역의 사회혁신 연구기관 Center for Research on Social Innovation: CRISES(2004)는 “구체적인 성과와 개선을 유발하는 새로운 조직 또는 제도, 새로운 업무처리방식, 새로운 사회적 시도, 새로운 메커니즘, 새로운 접근방법 및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개념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를 새로운 제도와 조직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새로운 시도가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새로운 사회문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증시한다. Goldenberg(2004)는 “개인이나 지역공동체가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된 새롭거나 개선된 활동과 시도, 서비스, 과정, 결과”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서도 사회경제적 문제해결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활동과 과정, 결과를 강조한다.

한편 OECD(2009)는 사회적 혁신을 “시장에 의해서 제공되지 않는 새로운 수요를 만족시키거나 사람들에게 생산과정에 참여하거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만족이나 좀 더 높은 만족을 가져오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 개념에서는 시장이나 정부

가 충족하지 못하는 수요를 충족할 것을 강조한다. 즉 많은 형태의 조직들이 사회적 혁신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방안을 마련하는 다양성에 기반한 틈새충전제(gap filler) 역할을 지적한 것이다.

사회적 혁신의 또 다른 특성으로 활발한 협력이 있다. Young(2011)은 사회적 혁신을 “성공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기술”로 정의하면서 지역공동체 내의 협력을 강조한다. 여기서는 사회적 혁신을 협력 그 자체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적 혁신을 수행하는데 단일한 영세하고 작은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재원조달, 인력채용, 사업진행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사회의 조직들이 활발하게 협력할 때 사회문제의 원활한 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스페인의 Innobasque: Basque Innovation Agency(2013: 8)에서는 지역사회혁신지수(Regional Social Innovation Index: RESINDEX)를 제시하면서 사회적 혁신은 “사회통합과 경쟁력,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요소이며,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목적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실제로 RESINDEX에서는 사회적 혁신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항목을 제시하고 실제 지역조사에 활용하였다. 이 지표에서 활용된 사회적 혁신 측정항목은 지식의 획득, 혁신적 프로젝트의 개발, 혁신적 프로젝트의 효과, 거버넌스 등이다. 각각의 항목들은 다양성, 파급효과, 협력의 정도 등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다. 여기서는 다른 개념화에서 언급하지 않는 영역으로 파급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혁신의 결과는 지역사회 전체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큰 효과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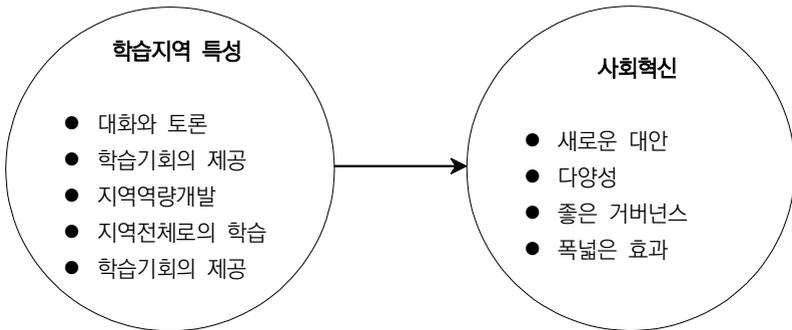
이러한 개념정의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미우라 히로키(2013: 342)는 Nicholls & Murdock(2012)의 정의를 인용하면서 사회적 혁신을 “스스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개인이나 조직의 실천적 전략으로서, 민간 차원의 창의성이나 기업가정신을 활용하는 융합적 공공정책으로서, 또한 투표나 기부를 넘어서 시민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민주주의이론”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사회적 혁신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기능적으로 유용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역할과 영향력을 증대하는 민주주의가 심화되고 확대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3. 학습지역과 사회혁신

학습이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는 사실이 기존연구를 통하여 확인되었고 다양한 지식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 혁신의 파급효과가

커진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바 있다(Lundvall, 1992; Edquist & Johnson, 1997). 일반적으로 혁신은 학습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효과적인 작업루틴을 발전시키고 창의적인 대안을 실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분리된 행위와 아이디어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OECD, 2011). 그리고 혁신과 학습은 동시에 발생하면서 인프라, 시스템, 문화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착근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정무권·한상일, 2008). 특히, 사회적 혁신은 다양한 지역의 기관과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창의적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지식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과 정책대안의 모색이 중요하다(Noya, 2009). 그런 측면에서 학습지역의 형성은 사회적 혁신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학습지역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념화하고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밝혀 사회적 혁신에 대해 어떤 구성요소가 기여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의 인과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의 인과모형



위의 인과모형에서 제시된 관계는 기존 연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독립변수로 설정된 대화와 토론은 새롭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한다. Hirsch(2001)에 따르면 학습기회가 제공되고 대화와 토론이 활성화될 경우 좋은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 또한 분권화를 통한 임파워먼트와 지역전체가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 새로운 아이디어의 모색과 확산이 가능하다(Innobasque, 2013). Noya(2009)는 국제적으로도 지역전체의 능력개발과 지역전체가 지역문제를 인식하려는 노력 즉 역량개발과 지역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창출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OECD(2010)의 지역사회에서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습기회가 제공되면 새로운 사업대안이 모색되면서 사업주체간 관계형성에 기여하고 정책의 이전효과로 인하여 파급효과가 커진다고 설명한다. 요약하면 지역사회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에서의 사회혁신이 가능해지며 이는 곧 지역경쟁력의 제고로 이어지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OECD, 2010).

요약하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율적, 참여적, 민주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지식의 생산자나 전달자가 되고 그 지식을 혁신에 활용하는 과정이 증시된다. 이러한 ‘학습지역’이 조성될 경우 지역 전체가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변혁할 수 있으며 전체 지역이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그 변화가 유발하는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의적인 대안을 지역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모색할 수 있다.

Ⅲ. 학습지역과 사회혁신의 척도화

학습지역과 사회혁신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사실이 기존연구에 의해 밝혀지고 있는 반면, 그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그 구체적인 구성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와 엄밀한 분석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 구성요소가 다소 포괄적이며 상호 중첩적인 상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기존연구로부터 개념의 구성요소를 발견하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측정지표를 정제화(purification)하고자 한다.

1. 학습지역의 척도화

학습지역과 연관된 초기 활동 가운데 인보관운동이나 1950-60년대의 국제기구의 개발도상국가 지역개발 활동은 지역 주민에 대한 학습기회의 제공과 전반적인 역량의 제고를 강조한다. 이런 관점은 1990년대 이후에 강조된 지역혁신체제의 논의에서도 재확인된다. 지속적인 학습기회 제공은 스스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탐구하는 주민들의 자세, 상호학습을 격려하는 태도, 주민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실수도 학습의 기회가 된다는 전반적인 인식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역량개발은 지역 전체 수준에서 주민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노력을 포괄하는 영역이다.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노력과 투자, 역량이 지역의 경쟁

력이 된다는 인식, 지역의 일을 하면서 학습하는 과정 등이 중요하다.

반면 참여적 주민 주도적 지역발전전략 등에서는 주민들의 대화와 토론, 그리고 임파워먼트를 통한 참여의 장려 등을 포괄한다. 대화와 토론의 활성화를 현대적인 의미의 지역에서 해석하면 지위와 상관없이 토론하며, 타인의 의견을 묻고 청취하며, 쌍방향 소통을 중시하며, 신뢰와 존경심을 쌓아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에서의 주민들의 참여와 실질적인 권한행사, 지역정보의 제공과 공유, 주민들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 협력관계 등이 임파워먼트를 구성하는 항목이 될 것이다. 1970년대 이후 강조된 평생학습사회 운동에서는 지역단위의 학습체계의 형성을 통한 학습의 통합을 중시했다. 일반적으로 학습은 개인이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지역 전체가 함께 학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차원에서 직면하는 지역사업의 실패도 새로운 기회라고 인식하는 공감대나 지역사회에서 진행되는 일상적인 과업을 학습으로 인식하는 자세, 위험감수에 대한 지역의 전반적인 관점, 그리고 주민들의 능력이 지역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인식 등이 지역 전체가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서 배워나가는 자세에 속한다. 이처럼 학습지역의 개념을 영역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구성요소는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 학습지역의 주요영역과 측정을 위한 개념구성

학습지역 영역	개념구성
대화과 토론의 활성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열린 질문, 주민 간 존경심, 신뢰를 구축하는 시간, 쌍방향 소통, 지위에 무관한 질문, 타인의견에 대해 경청하는 자세
임파워먼트	지역사업에의 참여, 지역정보의 제공, 지역정보의 공유, 주민참여가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효능감, 지역주민 간 협력의 활성화,
지역역량개발	역량개발노력, 역량개발투자, 지역사업 참여를 통한 학습, 역량이 지역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인식
학습기회의 제공	필요한 기술의 탐구, 학습에 대한 지원, 상호학습의 격려, 실수로부터의 학습
지역전체로서의 학습	지역사업 실패를 기회로 인식, 일상과업의 학습화, 위험을 감수하는 자세, 주민의 능력이 문제예방에 기여한다는 인식

2. 사회혁신의 척도화

개념화에서 논의된 사회혁신은 새로운 문제와 수요의 해결,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협력관계 형성, 강한 영향력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부응한 최근의 사회혁신은 현명하

고(smart), 지속가능하며(sustainable) 포용적인(inclusive) 성장전략의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0). 즉 사회혁신을 통해 빈곤퇴치, 일자리 창출, 역량과 참여개발, 생산과 소비 습관의 변화 등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는 시장, 공공부문, 시민사회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사회적 혁신은 사회문제 해결 위한 새로운 대안, 다양성, 좋은 거버넌스, 강한 파급효과 등을 개념구성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0; Innobasque, 2013). 아울러 각각의 영역을 구성하는 개념은 <표 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2〉 사회적 혁신의 주요영역과 측정을 위한 개념구성

사회혁신 영역	개념구성
새로운 대안	새로운 규칙, 새로운 조직, 창의적 해결방안, 신속한 대응
다양성	다양한 평가, 다양한 참여자, 다양한 기법
좋은 거버넌스	오픈사회혁신플랫폼, 지속적인 사업진행, 유연한 사업관행, 원활한 의사결정
폭넓은 효과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큰 파급효과, 광범위한 영향, 사업주체의 다양성

Ⅳ.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 분석결과와 한국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지역 특성과 사회적 혁신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기존 연구를 분석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참여하는 다양한 관계자를 인터뷰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 문항을 개발했으며 이를 설문조사의 형태로 측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다양한 계량분석을 통해 도구 검증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측정지표가 만들어질 경우 인과관계 분석을 예비적으로 시도하는 단계로 구성했다.

1. 표본

이 연구는 한국의 지역사회의 학습과 사회혁신을 개념화하고 척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 12월 한국의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하였으며, 이 통계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별 대푯값을 계산하여 분석되었다. 측정대상의 수는 일반적으로 측정변수의 수보다

사례의 수가 5배 이상 많아야 한다는 기존 연구(Tabachnick & Fidell, 2006)의 견해를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응답한 개인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응답자 중 다수가 40대 수도권 및 강원도 거주자로서, 대학교를 졸업한 연소득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의 남성이었다.

<표 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구성

사회적 특성		빈도	백분율	사회적 특성		빈도	백분율
연령	20대	144	24.0%	성별	남	316	52.7%
	30대	132	22.0%		여	284	47.3%
	40대	195	33.8%	학력	고등학교졸업 이하	189	31.5%
	50대	105	17.5%		대학교 졸업	360	60%
	60대이상	24	2.7%		대학원 졸업	51	8.5%
지역	수도권강원	313	52.2%	연소득	연2000만원 이하	216	36%
	영남	167	27.8%		연2000-4000만원	215	35.8%
	충청	58	9.7%		연4000-6000만원	110	18.3%
	호남제주	62	10.3%		연6000만원 이상	59	9.8%

3. 측정방법과 측정도구

측정변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학습지역 측정 변수 그리고 사회적 혁신여부를 묻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소득과 학력 응답률과 응답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구간을 제시하여 선택하는 방식으로 측정했다. 거주 지역은 응답자가 거주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분석의 단위로 활용하였다. 학습의 기회가 제공되고 구성원 간 대화와 토론 등 학습지역 특성이 발현되는 지역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최근 사회적 혁신의 사례로 주목받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로컬 푸드 운동의 단위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대푯값을 구하기 위해 이 조사의 응답자가 거주하는 147개 지방자치단체 별로 평균값을 계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학습지역 특성과 사회혁신 관련 주요 변수들은 설문 문항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모든 문항은 응답자가 인식하는 학습지역 특성, 사회적 혁신의 정도를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기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습지역 특성에서 대화와 토론, 학습기회의 제공, 임파워먼트의 영역에서 속하는 변수는 Marsick & Watkins(2003)의 학습조직 영역설문

(Dimensions of Learning Organization Questionnaire: DLOQ)에서 제시된 학습조직 측정척도를 지역공동체의 학습에 부합하는 문항으로 변형하여 활용했다. 역량개발 시스템, 지역전체로서의 학습을 측정하는 문항은 Denison 조직문화 설문(Denison Organizational Culture Survey)의 역량개발과 학습조직에 속하는 문항을 지역사회의 역량개발과 학습에 부합하는 문항으로 변형하여 측정에 활용했다. 측정에 활용된 조사도구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조사를 위한 설문문항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쳤다. 첫째, 이 연구의 저자가 기존연구를 검토하여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둘째, 저자를 제외한 정치학박사 1인과 행정학박사 1인의 자문을 구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예비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총 5인으로 구성된 대학원 재학생에게 사전 조사를 수행하였고, 문항의 적용가능성, 문장구성의 적절성, 문항의 구조 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문항의 어휘와 척도 구간의 배치 등을 수정한 후 최종 설문문항을 완성하였다.

4. 분석방법

조사결과와 분석을 위해 SPSS ver 18.0과 AMOS ver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가장 먼저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및 빈도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문항분석을 위해서 개별항목과 전체 총점 간 피어슨 상관관계(항목-총합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은 Perry(1996)의 연구에 사용된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그 중 첫 번째 단계가 항목-총합 상관관계 수치가 낮은 문항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Field(2005)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항목-총합 상관관계 값이 .3보다 작으면 전체 설문문항들이 측정하는 개념과 다른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3보다 작은 문항들은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조사된 자료의 변수가운데 .3미만의 항목-총합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분석에서 제외된 변수는 없었다.

구성타당도의 검증을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Kaiser-Mayer-Olkin(KMO) 수치검증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의 직교회전(varimax)방법을 사용하여 아이겐 값(eigen value)이 1이상, 요인 적재값(factor loading)이 .5이상인 경우로 구성요인을 확정하였다(Tabachnick & Fidell, 2006). 확정된 구성요인의 문항 내적인관성의 측정을 위해 Cronbach alpha값을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을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개념 신뢰도와 하위요인 간 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 적합도는 χ^2 값과 자유도의 비율,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Lewis Index (TL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지수를 고려하였다.

학습지역 특성과 사회적 혁신의 개념을 척도화하여 측정한 후 그 유효성을 검증한 후 평균값과 인과관계 분석한다. 각 영역을 구성하는 개별 측정항목의 지역별 평균값을 분석하면서 학습지역 특성과 사회적 혁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분석할 예정이다. 나아가서 학습지역 특성과 사회적 혁신의 관계를 회귀분석하여 학습지역 특성 중 어떤 영역이 사회적 혁신을 제고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학습이 발생하면 혁신과 성과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에 토대하여 인과성을 확인하면서 어떤 요인들이 사회 혁신 제고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V.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분석과 항목총합 상관관계 분석

이 연구에 조사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이 <표 4>에 제시되었다. 조사대상 14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학습지역 특성 변수들 가운데 가장 평균값이 큰 변수는 역량이 지역경쟁력의 제고로 이어진다는 믿음이며, 가장 작은 변수는 실수로부터의 학습이었으며, 사회적 혁신 변수 가운데 가장 평균값이 큰 변수는 이해당사자의 참여이며, 가장 작은 변수는 사업진행의 유연성이었다. 항목총합 상관관계 분석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모든 값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각 영역별 수치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에 따라서 전체 변수와 각 영역별 수치와의 적합도가 현저하게 낮은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변수를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측정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학습지역/ 사회혁신	영역	문항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영역내 ITC	전체 ITC	
학습지역 특성	대화와 탐구	자유로운 질문	1	5	2.77	.665	.737	.715	
		주민간 존경심	1	5	2.88	.618	.804	.790	
		신뢰구축 시간	1	5	2.77	.630	.869	.824	
		쌍방향 소통	1	4.5	2.74	.669	.875	.840	
		지위에 무관한 질문	1	5	2.75	.666	.726	.743	
		솔직한 조언교환	1	5	2.82	.852	.713	.719	
	학습기회 제공	실수로부터의 학습	1	5	2.50	.683	.673	.659	
		필요한 기술의 탐구	1	5	2.78	.649	.823	.834	
		상호학습 격려	1	5	2.72	.655	.861	.825	
	임파워 먼트	학습에 대한 지원	1	5	2.83	.694	.852	.811	
		주민참여	1	5	3.03	.599	.719	.543	
		지역정보의 제공	1	5	2.74	.681	.745	.637	
		지역정보의 공유	1	5	2.94	.689	.755	.697	
		지역문제에의 효능감	1	5	3.00	.716	.680	.678	
		지역 내 협력	1	5	2.95	.708	.732	.692	
	지역 역량개발	사업진행시 참여	1	5	3.03	.599	.754	.711	
		능력개발	1	5	2.97	.733	.750	.729	
		역량개발에의 투자	1	5	2.86	.715	.789	.758	
		분권화	1	4	2.85	.620	.749	.769	
	지역전체 의 학습	역량과 경쟁력	1	5	3.10	.730	.687	.719	
		사업실패를 기회로	1	5	2.78	.620	.672	.581	
		일상과업의 학습화	1	4.33	2.87	.601	.721	.716	
		위험감수	1	4	2.55	.602	.748	.722	
	사회혁신	다양한 방법	역량과 지역문제대응	1	5	2.70	.623	.598	.699
			다양한 평가	1	5	2.86	.748	.772	.810
			다양한 참여자	1	5	2.93	.750	.734	.790
		새로운 대안	다양한 기법	1	5	2.80	.682	.797	.808
새로운 규칙			1	4.25	2.74	.628	.829	.799	
새로운 조직			1	5	2.80	.659	.759	.754	
창의적 해결방안			1	4.25	2.76	.574	.761	.754	
협력적 거버넌스		신속한 대응	1	5	2.85	.604	.823	.851	
		오픈사회혁신플랫폼	1	5	2.80	.647	.676	.736	
		지속적 사업진행	1	5	2.79	.641	.668	.664	
		유연한 사업관행	1	5	2.68	.592	.774	.731	
		원활한 의사결정	1	5	2.75	.648	.736	.690	
		다양한 이해당사자	1	5	3.04	.703	.757	.741	
폭넓은 효과		큰 파급효과	1	5	3.04	.722	.835	.783	
		광범위한 효과	1	5	2.99	.642	.757	.758	
		사업주체의 다양성	1	5	2.87	.640	.776	.819	

주: ITC는 item to total correlation

2. 요인분석

1)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요인적재치가 수용기준에 미달하거나 다른 요인과 연계성이 강하게 나타난 변수들을 제외함으로써 요인을 정제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로 최종적으로 얻게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KMO값(학습지역특성: .934, 사회혁신: .941)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학습지역특성: $\chi^2=1815.068$, $p<.000$, 사회혁신: $\chi^2=1532.539$, $p<.000$)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요인분석에 적합한 공통요인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영역의 크론바하 알파값이 .80보다 크고, 모든 문항의 요인적재값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5>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학습지역/ 사회혁신	영역	문항	요인 적재치	크론바하 알파
학습지역 특성	대화와 토론	자유로운 질문	.831	.934
		주민 간 존경심	.748	
		신뢰구축 시간	.772	
		쌍방향 소통	.796	
		솔직한 조언 교환	.755	
	임파워먼트	주민참여	.846	.883
		지역정보의 제공	.753	
		지역정보의 공유	.658	
		지역문제에의 효능감	.650	
	지역역량개발	사업진행시 참여	.605	.868
		능력개발	.800	
		역량개발에의 투자	.659	
지역전체로의 학습	분권화	.680	.842	
	지역사업실패를 기회로	.809		
	일상산업의 학습화	.717		
사회혁신	다양성	지역사업의 위험감수	.686	.890
		다양한 평가	.769	
		다양한 기법	.689	
	새로운 대안	다양한 사업주체	.664	.891
		새로운 조직	.695	
		새로운 규칙	.651	
	좋은 거버넌스	신속한 대응	.532	.844
		오픈사회혁신플랫폼	.724	
		유연한 사업관행	.711	
	폭넓은 효과	원활한 결정	.757	.895
		큰 파급효과	.739	
광범위한 효과		.751		
다차원적 조정과 협의		.671		

학습지역의 개념을 구성하는 변수들은 이론적 검토에서 분류한 다섯 가지 영역에서 학습기회의 제공 변수들이 모두 타 영역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지역 특성은 네가지 영역으로 재분류 되었다. 결국 대화와 토론 영역에 다섯 가지 변수, 임파워먼트에 다섯 가지 변수, 지역역량개발에 세 가지 변수, 지역전체로서의 학습에 세 가지 변수가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적 혁신을 측정하는 새로운 대안, 다양한 방법, 좋은 거버넌스, 폭넓은 효과 등의 네 가지 영역 구분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적재치가 낮은 변수들을 제외하면 각 영역에 세 변수들이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로 도출된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및 개념 신뢰도와 같은 하위요인 간 구조적 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학습지역 특성과 사회혁신이 각각 네 영역으로 구분되어 하위요인 간 상관성이 있음을 가정하였다. 이와 함께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들의 구조모형을 비교하기 위해 두 가지 대안모형을 가정하였다. 첫 번째 대안모형은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한 것이며, 두 번째 대안모형은 모든 측정변수가 단일 요인으로 부하된다는 모형이다. 구조방정식 추정에는 개별문항별 표본 수와 분포를 감안하여 정규성을 가정하고 최대우도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가정한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연구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학습지역 특성과 사회혁신이 각각 네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며 각 하위요인 간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6〉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영역	모형	χ^2	df	p	χ^2/df	TLI	CFI	RMSEA
학습 지역 특성	상관성 가정 4요인모형	219.7	98	.000	2.242	.918	.933	.092
	독립 4요인 모형	572.2	104	.000	5.502	.704	.744	.176
사회 혁신	1요인 모형	475.3	104	.000	4.571	.765	.797	.156
	상관성 가정 4요인모형	111.3	48	.000	2.299	.944	.959	.094
	독립 4요인 모형	622.2	54	.000	11.522	.543	.626	.268
	1요인 모형	177.7	54	.000	3.292	.900	.919	.125

주: TLI는 Rucker Lewis Index, CFI는 Comparative Fit Index, RMSEA는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확인적 요인분석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분석을 위해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와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 AVE)를 분석한 결과 개념신뢰도는 모든 요인에서 기준값인 .7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추출지수 값도 모든 요인에서 기준 값인 .05보다 크고, 각 요인 간 상관자승치보다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하위요인들의 신뢰도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습지역특성과 사회적 혁신의 요인 간 상관계수는 .600 - .672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지역특성 요인 간 상관계수의 최대값인 .672이므로 학습지역특성을 독립변수로 활용할 경우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표 7〉 학습지역 특성과 사회혁신간 상관관계, 모형의 평균분산추출과 개념신뢰도

영역		1	2	3	4	5	6	7	8
학습 지역 특성	1 대화와탐구	.74/.93	.442	.387	.423	-	-	-	-
	2 임파워먼트	.665	.60/.88	.471	.465	-	-	-	-
	3 지역역량개발	.622	.686	.69/.87	.476	-	-	-	-
	4 지역전체로의 학습	.650	.682	.690	.64/.84	-	-	-	-
사회 혁신	5 새로운대안	-	-	-	-	.74/.89	.520	.510	.520
	6 다양성	-	-	-	-	.721	.67/.86	.615	.516
	7 좋은 거버너스	-	-	-	-	.714	.784	.64/.84	.545
	8 폭넓은 효과	-	-	-	-	.721	.718	.738	.74/.90

주: 대각선 셀의 왼쪽은 평균분산추출, 오른쪽은 개념신뢰도, 대각선 아래쪽 셀은 상관관계이며 대각선 위쪽 셀은 상관자승치

3. 회귀분석: 학습지역 특성과 사회혁신간 인과관계 분석

학습지역 특성과 사회적 혁신간의 회귀분석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통제변수로 응답자의 성별, 학력, 소득, 지역공동체 회의 참여여부 등을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로 학습지역 특성에 속하는 다섯 가지 영역을 고려했으며 사회적 혁신의 세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각각 진행하였다. 각종 진단결과 다공선성의 문제를 포함한 통계학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학습지역특성과 사회적 혁신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사회혁신)		다양성		새로운 대안		좋은 거버넌스		폭넓은 효과	
		B	β	B	β	B	β	B	β
통제 변수	평균연령	.005	.073	-.006	-.098*	.003	-.001	.002	.035
	규모(인구)	.017	.022	.027	.039	.024	.036	-.015	-.021
독립 변수	대화와탐구	.396	.371***	.508	.522***	.515	.551***	.669	.642***
	임파워먼트	.200	.177**	.169	.163*	.061	.061	.016	.015
	지역역량개발	.325	.319***	.102	.110	.128	.143	.101	.102
	지역전체학습	.109	.079	.112	.104	.119	.115	.128	.110
상수		-493		.368		.139		.498	
R ²		.740		.696		.620		.670	
조정된R ²		.729		.683		.603		.656	
F		66.431***		53.424***		38.029***		47.331***	

* $p < .05$, ** $p < .01$, *** $p < .001$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습지역 특성은 사회적 혁신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성을 모색하는데 학습지역 특성의 세 가지 영역 대화와 토론, 임파워먼트, 지역역량개발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대안의 모색에는 대화와 토론과 임파워먼트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리고 평균연령이 낮을수록 새로운 대안을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거버넌스와 폭넓은 효과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는 대화와 토론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립변수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대화와 토론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질문과 토론이 이어질 경우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VI 연구의 함의

1. 학습지역과 사회혁신 개념의 유효성 확인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개념화되고 측정되지 못했던 학습지역과 사회혁신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발굴하였고 통계학적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요소들이 학습지역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단위로서의 학습지역 연구에서는 보다 비형식적인 학습과정이 중시될 필요가 있다. 형식적인 교육프로그램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

대화, 토론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다양한 소모임을 조직화하고 지역사회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견을 개선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사회혁신의 유효성도 확인되었다. 사회혁신은 최근 사회적 경제 개념의 발전과 함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개념이다. 사회적 혁신의 개념을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한 결과 역시 개념적인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의적인 대안, 좋은 거버넌스, 폭넓은 효과 등이 사회적 혁신의 중요 구성요소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지역 특성과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토대로 향후 지역평생학습체계형성, 지역사회개발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대화와 토론 문화의 조성

다섯 가지 학습지역 특성 영역 가운데 사회적 혁신의 활성화에 가장 일관되고 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대화와 토론이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표명하고 의견의 청취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의 모색이 중요하다. 첫째,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동하고 생성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 의견개진의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명확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공식적 제도형성뿐만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동료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비공식적 문화의 형성도 중요하다. 실제로 학습의 성과는 비형식 학습에서 제기되는 경향이 있으며 전체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기탄없이 개선할 수 있는 규범, 규칙, 신뢰관계 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항상 질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식적인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물리적 거리는 과거보다 축소되었고 다양한 지역에서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확보되고 있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분산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통로의 마련이 중요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의 아이디어를 나누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새로운 발전모형으로서의 학습지역과 사회혁신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

학습지역과 사회적 혁신의 개념은 국제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던 반면 통일된 척도화는 이루어지지 못한 영역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두 개념의 척도화가 이루어졌으

며 주관적인 인식을 통한 분석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학습지역과 사회적 혁신은 정부 주도적인 발전모형에서 좋은 거버넌스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사회문제해결 모형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에도 유용한 개념이다. 국가와 시장의 기능이 취약한 사회의 경우 지역사회의 학습과 혁신을 통한 문제해결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학습지역과 사회적 혁신은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스스로 모색하도록 하는 발전방안이며 개발도상국가의 미래지향적 발전모형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활용된 측정척도를 개발도상국가에 활용하여 유효성을 다시 검증한 후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보편적 척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Ⅶ. 결론

이 연구는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습지역 특성과 사회혁신을 개념화하고 척도화하고자 하였다. 학습지역과 사회적 혁신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증시하는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개념구성을 시도하였다. 개념구성을 한 후에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척도를 개발했으며, 그 척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한국의 맥락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측정도구를 확정하였다. 나아가서 학습지역 특성과 사회적 혁신의 인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학습지역 특성의 대화와 토론 영역이 사회적 혁신에 일관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별로 표본을 확충하고 지역별 학습의 상황을 진단하여 사회적 혁신을 제고하고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의 표본은 전국단위 조사를 통한 척도화를 완성하기 위한 목표 하에서 선정되었다. 그러나 향후 지역별로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 지역에서 충분한 표본을 추출하여 보다 심층적인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측정지표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인 만큼 지역별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혁신 영역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보다 더 객관화가 가능한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의 학습과 혁신의 정도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습지역과 사회혁신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문헌조사, 면접조사 그리고 실증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기순·김인호. 2004. “지식경영 활동계획을 위한 조직 환경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42: 79-100.
- 김태준·조영하·이상일·이병준·박찬웅·구자숙·김태리. 2006.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회적 자본 측정 및 형성전략의 국제비교연구.”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9(3): 145-185.
- 라준영. 2013. “사회적 기업의 기업가정신과 가치혁신.” 《한국협동조합연구》, 31(3): 49-71.
- 라준영. 2014. “사회적 기업 생태계와 정책혁신: 진화론적 관점.” 《한국협동조합연구》, 32(3): 27-57.
- 미우라 히로키. 2013. “사회혁신 담론에서 행위자 개념에 관한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47(5), 341-36.
- 박진희. 2015. “재난 위험 사회의 위험 관리 전략의 새로운 모색: 회복탄력성 (Resilience)과 시민성(Citizenship) 향상을 중심으로.” 《환경철학》, 19: 91-118.
- 손유미. 2005. 《평생학습의 새 패러다임과 지역사회》.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송석휘. 2015. “지방정부 사회혁신에 대한 평가와 과제: 서울시 사회혁신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52: 155-191.
- 양오석. 2015. “사회혁신기업의 지속가능성 결정요인 연구: (주) 향기내는사람들 사례분석.” 《국제지역연구》, 19(1): 157-204.
- 이원호. 2014. “지속가능한 사회혁신기반 지역경쟁력 개념정립과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 지리적 분석을 위한 이론적 사례연구.” 《국토지리학회지》, 48(2): 245-255.
- 이희수·권인탁·김득영·양병찬·이정희·이세정·이현석. 2001. 《지역단위 평생교육체제 구축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정무권. 2012. “위험사회론과 사회적 위험의 역동성: 사회적 위험의 거시적 연구를 위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2): 195-224.
- 정지용. 2000. 《지역사회개발과 사회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한세역. 2013.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Co-creation 접근의 가능성과 한계.” 《행정논총》, 51(3): 107-133.
- Asheim, B. T. 1998. "Learning Regions as Development Coalitions: Partnership as Governance in European Workfare States?"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Conference on Culture, Place and Space in Contemporary Europe. University of Durham, UK, 17-20th September 1998.
- Asheim, B. T. & Coenen, L. 2006. "Contextualising Regional Innovation Systems in a Globalising Learning Economy: On Knowledge Bases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31: 163-173.
- CRISES. 2004. *An Introduction to CRISES*.
[www.crisis.uqam.ca/pages/fr/docs/P_CRISES_ang\(mai04\).pdf](http://www.crisis.uqam.ca/pages/fr/docs/P_CRISES_ang(mai04).pdf).
- Chambon, J.-L., David, A. & Devevey, J.-M. 1982. *Les innovations sociales*,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Cooke, P. & Leydesdorff, L. 2006. "Regional Development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The Construction of Advantage."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31: 5-15.
- Cooke, P., Uranga, M. G., & Etzebarria, G. 1997. "Regional Innovation Systems: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Dimensions." *Research Policy*, 26: 475-491.
- Defourny, J. & Nyssens, M. 2013. "Social Innovation,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 What Can the European Debate Tell Us?" In Frank Moulaert, Diana MacCallum, Abid Mehmood & Abdelillah Hamdouch, (eds.). *The International Handbook on Social Innovation: Collective Action, Social Learning and Transdisciplinary Research*, pp. 40-52, Cheltenham, UK: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 Doloreux, D. & Parto, S. 2005. "Regional Innovation Systems: Current Discourse and Unresolved Issues." *Technology in Society*, 27: 133-153.
- Drucker, Peter. 1985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Inc.
- Edquist, C. & Johnson, B. 1997.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in systems of innovations." In Edquist (ed.) *The Systems of Innovation: Technologies, Institutions and Organisations*, London and Washington: Pinter Publishers
- European Commission. 2013. *Guide to Social Innovation*.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_____. 2014. *Social Innovation: A Decade of Changes*,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Faure, E., Herrera, F., Kaddoura, A. Lopes, H., Petrovsky, A. V. Rahnema, M. & Ward, F. C. 1972. *Learning to be: The World of Education Today and Tomorrow*, Paris, France: UNESCO.
- Field, A. 2005. *Discovering statistics with SPSS*. London: Sage.
- Florida, R. 1995. "Toward the learning region." *Futures*, 27(5): 527-536.
- Gerometta, J., Häussermann, H. & Longo, G. 2005. "Social Innovation and Civil Society in Urban Governance: Strategies for an Inclusive City." *Urban Studies*, 42(11): 2007-2021.
- Goldenberg, M. 2004. "Social Innovation in Canada: How the Non-profit Sector Serves Canadians--and how it Can Serve Them Better."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s (CPRN).
- Hassink, R. 1998.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European Experiences and Concepts." 《과학기술정책》, 114: 29-44.
- Hirsch, D. 2001. *Learning to Innovate: Learning Region*, Paris: OECD.
- Innobasque. 2013. *RESINDEX: Regional Social Innovation Index*, Bizkaia, Spain.
- Lévesque, B. 2013. "Social Innovation in Governance and Public Management Systems: Toward a New Paradigm?" In Frank Moulaert, Diana MacCallum, Abid Mehmood & Abdelillah Hamdouch, (eds.). *The International Handbook on Social Innovation: Collective Action, Social Learning and Transdisciplinary Research*, pp. 25-39, Cheltenham, UK: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 Leydesdorff, L. & Fritsch, M. 2006. "Measuring the Knowledge Base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s in Germany in terms of a Triple Helix Dynamics." *Research Policy*, 35: 1528-1553.
- Lorenzen, M. 2007. "Social Capital and Localised Learning: Proximity and Place in Technological and Institutional Dynamics." *Urban Studies*. 44(4): 799-817.
- Lundvall, B., Johnson, B., Andersen, E. S. & Dalum, B. 2002. "National Systems of Production, Innovation and Competence Building." *Research Policy*, 31: 213-231.
- Lundvall, B. A. 1992. *National Innovation System: Towards a Theory of Innovation*

- and Interactive Learning*. London: Pinter.
- Marsick, V. J., & Watkins, K. E. 1999. *Facilitating learning organizations: Making Learning Count*. Gower Publishing, Ltd.
- Metcalf, S. & Ramlogan, R. 2008. "Innovation Systems and the Competitive Process in Developing Economies." *The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48: 433-446.
- Morgan, K. 1995. "The Learning Region: Institutions, Innovation and Regional Renewal." *Regional Studies*, 31(5): 491-503.
- Moulaert, F., MacCallum, D. & Hiller, J. (2013). "Social Innovation, Precept, Concept, Theory and Practice." In Frank Moulaert, Diana MacCallum, Abid Mehmood & Abdelillah Hamdouch, (eds.). *The International Handbook on Social Innovation: Collective Action, Social Learning and Transdisciplinary Research*, pp. 13-24, Cheltenham, UK: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 Noya, A. 2009. *Transforming Innovation to Address Social Challenges*. Paris: OECD.
- OECD. 2001a. *Learning to Innovate: Learning Regions*. Paris: OECD.
- _____. 2001b.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Learning Economy*. Paris: OECD.
- _____. 2009. *New Economy?: The Changing Role of Innov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 Growth*, Paris: OECD
- _____. 2011. *Fostering Innovation to Address Social Challenges*. Paris: OECD.
- Perry, J. L. 1996. "Measuring Public Service Motivation: An Assessment of Construct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6(1): 5-22.
- Rutten, R. & Boekma, F. 2007. (Eds.). *The Learning Region: Foundations, State of the Art, Future*, Cheltenham, UK: Edward Elgar.
- Spector, P. E. 1992. "A Consideration of the Validity and Meaning of Self-report Measures of Job Conditions," In Cooper, C. L. & Robertson, I. T. (Eds.) *International Review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West Sussex, UK: John Wiley.
- UNESCO. 1997. *Learning: The Treasure within*, UNESCO: Paris, France.
- Young, H. P. 2011. "The dynamics of social innova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8.